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녹) 연중 제6주일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지킵시다.

- **성당에 늦지 않게 오기**
- **코로나 방역 수칙 지키기**

(녹) 연중 제6주일 (2023. 2.12.)

\* 오늘 전례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의 준수와는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하는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끕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집회서 15,15-20): 15 네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 있다. 16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17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18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19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사람의 행위를 낱알이 아신다. 20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 제2독서(1코린 2,6-10): 형제 여러분,

6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7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8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9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10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 복음(마태 5,20-22나.27-28.33-34나.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27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화답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공지 사항

서. ◎

-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이다. ◎
-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지체인 교회가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뵈고 사랑을 전하며,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배려로 풀어나가며 형제적 사랑을 키우고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3.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이웃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버려진 이들을 위로해 주시어, 주님에게서 영원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특히 가족의 보살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다른 본당들과 친교를 이루며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당 : 337 (미사 시작)

봉헌 : 340 (봉헌) 342 (제물 드리니)

성체 : 504 (우리와 함께 주여)169 (사랑의 성사)

파견 : 345 (미사 끝)

### ♣ 3월 1일 밀라노 한인성당 25주년 기념 미사 안내

- 밀라노 한인성당 설립일인 오는 3월 1일에 본당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마리오 대주교님(현 밀라노 대교구장)께서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신앙의 결실 이신 우리 신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날짜: 2023년 3월 1일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 사순시기(재의수요일) 안내

- 2월 22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로서 단식과 금육의 의무가 있습니다.(단식: 18~60세 / 금육: 14세 이상)
- 재의 예식: 2월 19일 교중미사 중
- 십자가의 길: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20:00시 (2월24일~4월8일)

- ♣ 다음 주일(19일)에 박상욱 라우렌시오 신부님 오셔서 미사 집전해드립니다

### ♣ 모임/회의

- 금일(12일) 미사 후, 사목평의회

### ♣ 봉사자

	오늘 주일(12일)	다음 주일(19일)
제1독서	정명룡 미카엘	서수진 실비아
제2독서	정지원 글라라	류정연 릿다
복사	엄채윤 엘리사벳 / 강윤이 스텔라	박동현 요한보스코 /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계단·화장실	정명룡 미카엘	서수진 실비아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24.90 • 교무금 € 800.-